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57호 (2014-36) 발행일 : 2014. 09. 12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OECD 국가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비교

OECD 국가의 사망률을 원인별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지난 10년간 크게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위암, 당뇨병, 뇌혈관질환, 운수사고,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상위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자살, 운수사고, 위암, 당뇨병은 OECD 국가 중 5위 이내로 사망률이 높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허혈성심장질환은 32위, 전체 암에 의한 사망률은 29위로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국가에 속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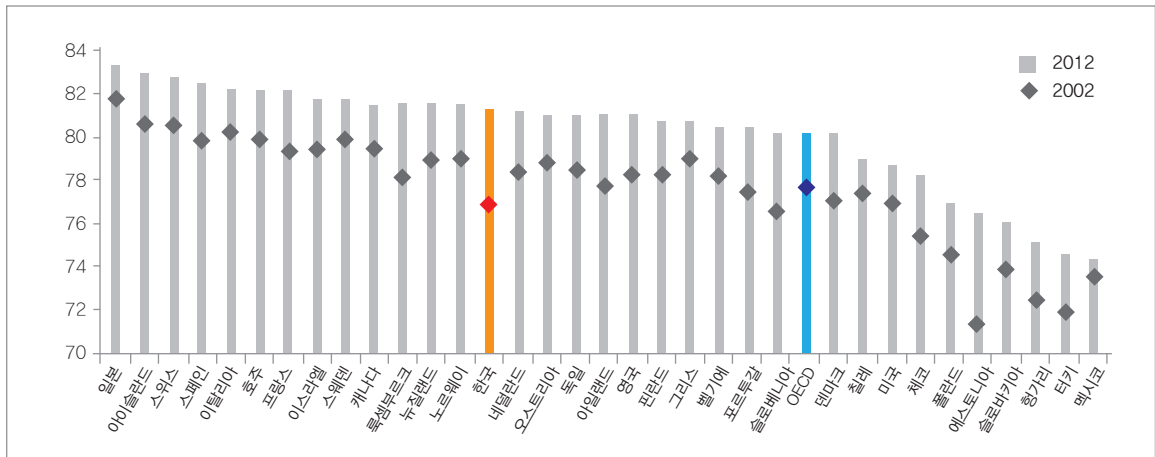
장영식
데이터연계센터 초빙연구위원

1. 서론

■ 기대수명

- 기대수명은 사망률에 영향을 크게 받음. 사망률이 높을수록 기대수명은 낮아지며, 반대로 사망률이 낮을수록 기대수명은 높아지게 됨
 -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빠르게 증가하여 왔음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02년 76.9년에서 2012년에는 81.3년으로 5.7%가 증가, 에스토니아(7.1%; 2002년 71.4년 → 2012년 76.5년)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기대수명의 증가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등에 의한 영향임

[그림 1] OECD 국가의 기대수명 변화



주: 1. OECD 국가: 2002년, 2012년 이용 가능한 가장 근접년도 자료임.
 2. OECD: 2002년, 2012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근접년도 자료로 구성되었음.

- 2012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1.3년으로 OECD 평균기대수명 80.2년보다 1.1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으로 83.2년이었으며, 아이슬란드(83.0년)와 스위스(82.8년)가 그 뒤를 이었음
 - 멕시코는 74.4년으로 OECD 국가 중 기대수명이 가장 낮았고, 다음은 터키로 74.6년이었음

■ 우리나라의 사망원인별 순위

- 우리나라의 2002년과 2012년의 사망원인별 순위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의적 자해(자살)가 8위에서 4위로 높아졌으며, 심장질환이 3위에서 2위로 높아지고 사망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폐렴이 6위로 높아진 것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임
- 그 밖에 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간 질환, 운수사고 등은 순위도 낮아지고 사망률도 낮아졌음

<표 1> 사망원인 순위 추이, 2002~2012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

순위	2002년		2012년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자수	구성비	사망률
1	악성신생물(암)	130.1	악성신생물(암)	73,759	27.6	146.5
2	뇌혈관 질환	77.0	심장 질환	26,442	9.9	52.5
3	심장 질환	36.9	뇌혈관 질환	25,744	9.6	51.1
4	당뇨병	25.1	고의적자해(자살)	14,160	5.3	28.1
5	만성하기도질환	22.6	당뇨병	11,557	4.3	23.0
6	간 질환	21.9	폐렴	10,314	3.9	20.5
7	운수 사고	19.1	만성하기도질환	7,831	2.9	15.6
8	고의적자해(자살)	17.9	간 질환	6,793	2.5	13.5
9	고혈압성 질환	10.6	운수 사고	6,502	2.4	12.9
10	호흡기 결핵	6.6	고혈압성 질환	5,239	2.0	10.4

주: 심장 질환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및 기타 심장 질환이 포함
 자료: 통계청, 2012년 사망원인 통계연보, 2013

2. OECD 국가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 전체사망원인에 의한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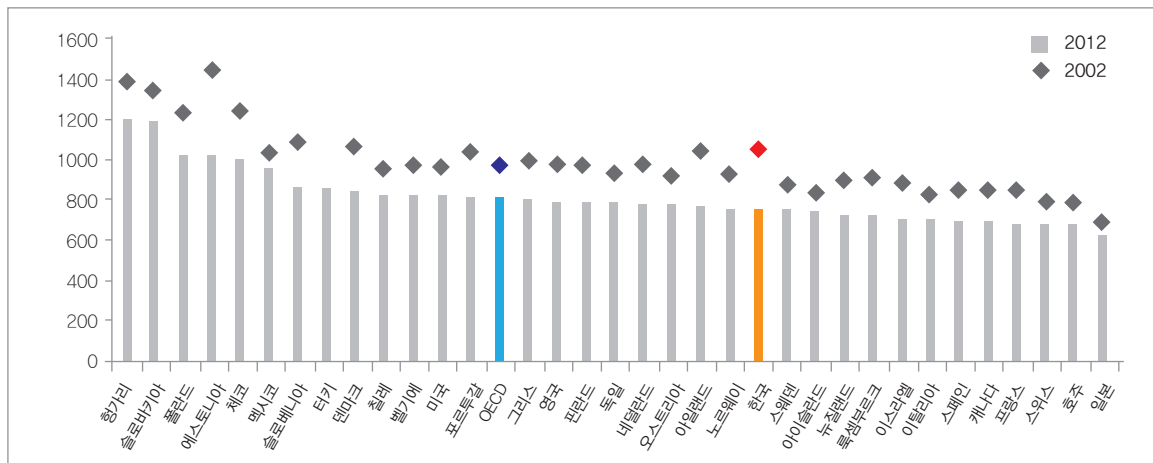
○ 기대수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전체사망원인에 의한 사망률은 모든 국가에서 감소하였음

- 연령을 표준화한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빠르게 감소하여 왔음
-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2002년 1,054.6(인구 10만명당)에서 2012년에는 753.8로 28.5%가 감소, 에스토니아(-29.6%; 2002년 1,440.9 → 2012년 1,014.6) 다음으로 높은 감소율을 나타냄
- 사망률의 감소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등에 의한 영향임

○ 2012년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753.8명으로 OECD 평균사망률 812.2명보다 58.4명이 낮았음

- 전체사망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으로 632.8명이었으며, 다음은 호주로 673.3명이었음

[그림 2] OECD 국가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수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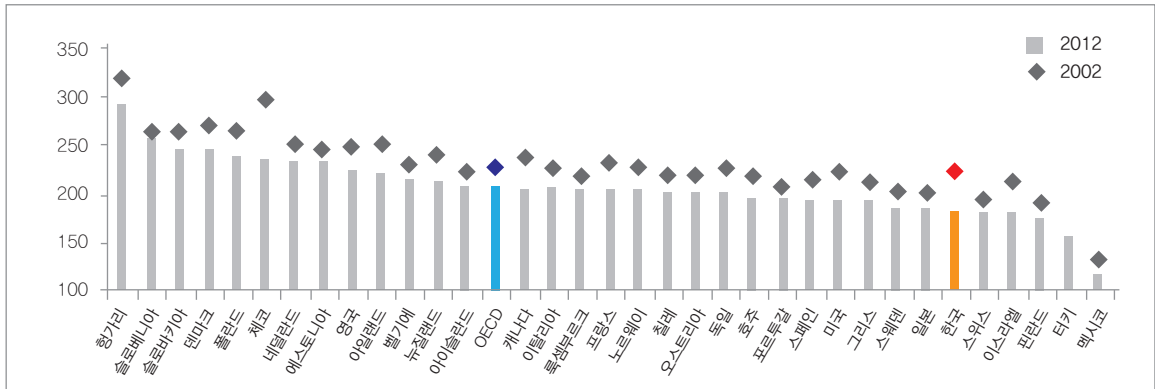
주: 1. OECD 국가: 2002년, 2012년 이용 가능한 가장 근접년도 자료임.
 2. OECD: 2002년, 2012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근접년도 자료로 구성되었음.

■ 암에 의한 사망률

○ 우리나라의 암에 의한 OECD 기준 연령표준화사망률은 2002년 224.8명(인구 10만명당)에서 2012년에는 183.3명으로 18.5%가 낮아짐

- OECD 국가 중 2002년에서 2012년 기간 중 암사망률이 가장 크게 낮아진 국가는 체코로 20.8%가 줄어들었으며, 다음은 우리나라였음
- 2012년 우리나라의 암사망률은 OECD 평균 207.5명에 비하여 24.2명이 낮았음
- 2012년 OECD 국가 중 암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로 293.3명이었으며, 다음은 슬로베니아로 257.3명이었음
- 암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 117.1명이었으며, 그 다음은 터키로 156.0명이었음

[그림 3] OECD 국가의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수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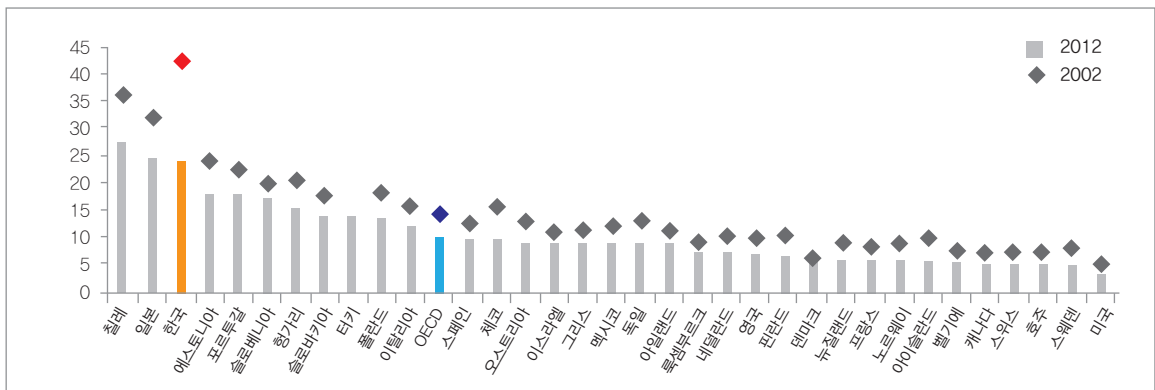
주: 1. OECD 국가: 2002년, 2012년 이용 가능한 가장 근접년도 자료임.
 2. OECD: 2002년, 2012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근접년도 자료로 구성되었음.

■ 위암에 의한 사망률

○ 우리나라의 위암에 의한 OECD 기준 연령표준화사망률은 2002년 42.8명(인구 10만 명당)에서 2012년에는 23.4명으로 45.3%가 감소함

- OECD 국가 중 2002년에서 2012년 기간 중 위암사망률이 가장 크게 저하된 국가는 우리나라였으며, 다음은 아이슬란드로 40.6%가 낮아짐
- 2012년 우리나라의 위암사망률은 OECD 평균 10.8명에 비하여 12.6명이 높았음
- 2012년 OECD 국가 중 위암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로 27.9명이었으며, 다음은 일본으로 25.4명이었음. 우리나라는 세 번째로 위암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국가임
- 위암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으로 3.8명이었으며, 그 다음은 스웨덴으로 5.2명이었음

[그림 4] OECD 국가의 위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수준 변화



주: 1. OECD 국가: 2002년, 2012년 이용 가능한 가장 근접년도 자료임.
 2. OECD: 2002년, 2012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근접년도 자료로 구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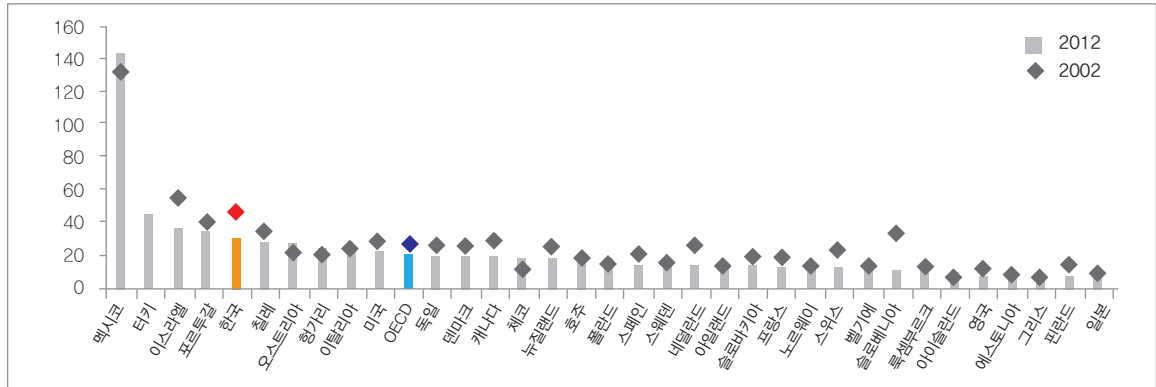
■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

○ 우리나라의 당뇨병에 의한 OECD 기준 연령표준화사망률은 2002년 48.6명(인구 10만 명당)에서 2012년에는 32.3명으로 33.5% 낮아짐

- OECD 국가 중 2002년에서 2012년 기간 중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슬로베니아로 67.8%가 낮아졌으며, 다음은 네덜란드로 45.2%가 줄어듦

- 2012년 우리나라의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은 OECD 평균 22.8명에 비하여 9.5명이 많았음
- 2012년 OECD 국가 중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로 144.5명이었으며, 다음은 터키로 46.4명이었음
-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7.4명이었으며, 그 다음은 핀란드로 7.5명이었음

[그림 5] OECD 국가의 당뇨병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수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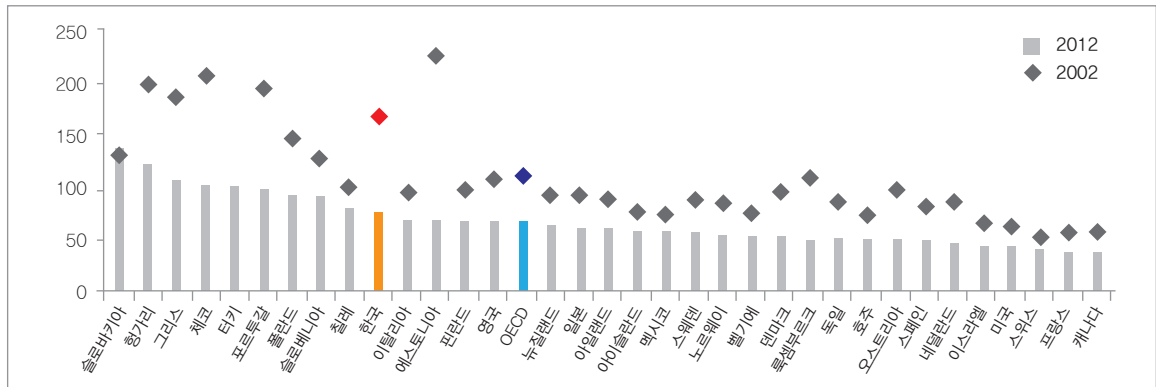


주: 1. OECD 국가: 2002년, 2012년 이용 가능한 가장 근접년도 자료임.
 2. OECD: 2002년, 2012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근접년도 자료로 구성되었음.

■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 우리나라의 뇌혈관질환에 의한 OECD 기준 연령표준화사망률은 2002년 168.5명(인구 10만 명당)에서 2012년에는 76.5명으로 54.6%가 낮아짐
- OECD 국가 중 2002년에서 2012년 기간 중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크게 줄어든 국가는 에스토니아로 70.1%가 감소하였으며, 다음은 우리나라였음
- 2012년 우리나라의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OECD 평균 68.1명에 비하여 8.4명이 많았음
- 2012년 OECD 국가 중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로 136.7명이었으며, 다음은 헝가리로 122.3명이었음
-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캐나다로 37.8명이었으며, 그 다음은 프랑스로 38.2명이었음

[그림 6] OECD 국가의 뇌혈관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수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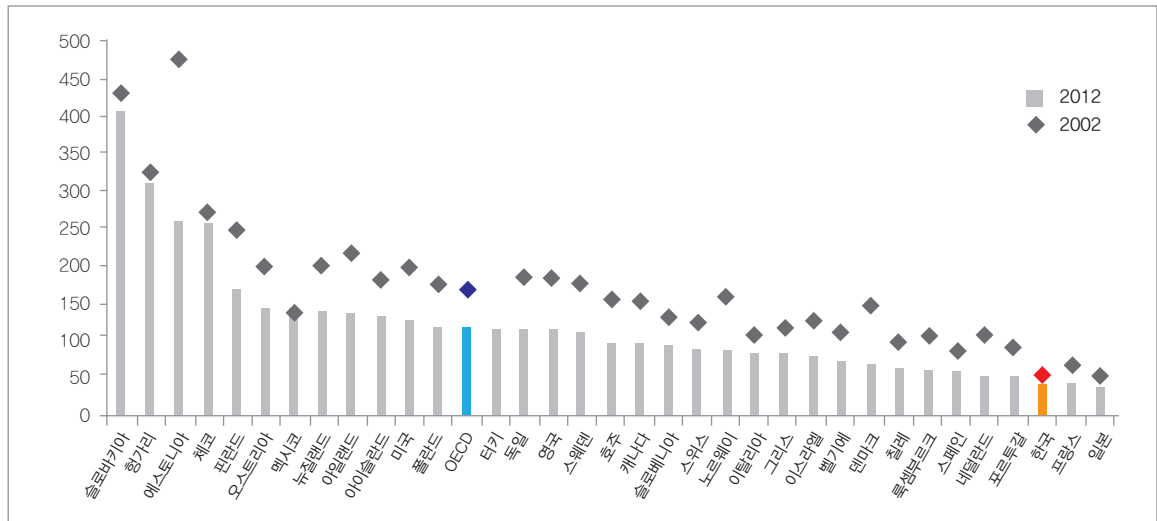
주: 1. OECD 국가: 2002년, 2012년 이용 가능한 가장 근접년도 자료임.
 2. OECD: 2002년, 2012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근접년도 자료로 구성되었음.

■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 우리나라의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OECD 기준 연령표준화사망률은 2002년 52.4명(인구 10만 명당)에서 2012년 43.2명으로 17.6%가 감소함

- OECD 국가 중 2002년에서 2012년 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크게 낮아진 국가는 덴마크로 53.2%가 줄어들었으며, 다음은 네덜란드로 50.9% 감소함
- 2012년 우리나라의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OECD 평균 119.2명에 비하여 76.0명이 적었음
- 2012년 OECD 국가 중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로 404.4명이었으며, 다음은 헝가리로 309.6명이었음
-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39.0명이었으며, 그 다음은 프랑스로 42.6명이었음

[그림 7] OECD 국가의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수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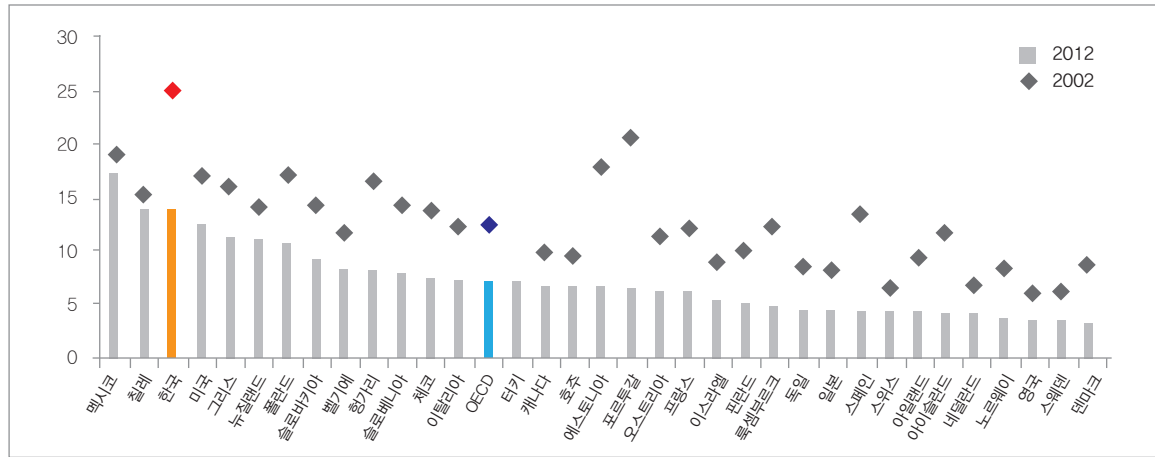
주: 1. OECD 국가: 2002년, 2012년 이용 가능한 가장 근접년도 자료임.
 2. OECD: 2002년, 2012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근접년도 자료로 구성되었음.

■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률

○ 우리나라의 운수사고에 의한 OECD 기준 연령표준화사망률은 2002년 25.2명(인구 10만 명당)에서 2012년에는 13.9명으로 44.8%가 낮아짐

- OECD 국가 중 2002년에서 2012년 기간 중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크게 줄어든 국가는 포르투갈로 68.6% 감소하였으며, 다음은 스페인으로 67.6% 감소함
- 2012년 우리나라의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OECD 평균 7.3명에 비하여 6.6명이 많았음
- 2012년 OECD 국가 중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로 17.4명이었으며, 다음은 칠레로 14.0명이었음
-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로 3.3명이었으며, 그 다음은 스웨덴으로 3.5명이었음

[그림 8] OECD 국가의 운수사고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수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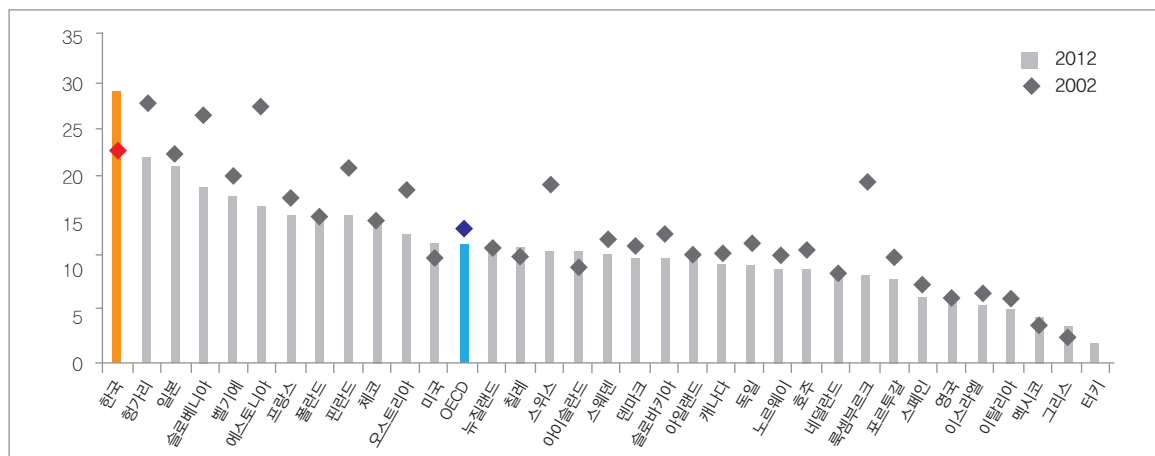
주: 1. OECD 국가: 2002년, 2012년 이용 가능한 가장 근접년도 자료임.
 2. OECD: 2002년, 2012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근접년도 자료로 구성되었음.

■ 자살에 의한 사망률

○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OECD 기준 연령표준화사망률은 2002년 22.7명(인구 10만 명당)에서 2012년에는 29.1명으로 28.2%가 증가되었음

- OECD 국가 중 2002년에서 2012년 기간 중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크게 줄어든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51.0%가 줄어들었으며, 다음은 에스토니아로 39.2%가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는 크게 증가하였음
- 2012년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OECD 평균 12.1명에 비하여 17.0명이 많았음
- 2012년 OECD 국가 중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였으며, 다음은 헝가리로 22.0명이었음
-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로 1.7명이었으며, 그 다음은 그리스로 3.9명이었음

[그림 9] OECD 국가의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수준 변화



주: 1. OECD 국가: 2002년, 2012년 이용 가능한 가장 근접년도 자료임.
 2. OECD: 2002년, 2012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근접년도 자료로 구성되었음.

3. 결론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다른 OECD 국가보다 빠르게 높아져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높아짐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지난 10년간 빠르게 높아져 2012년에 81.3년을 기록하였으며, OECD 국가의 평균 기대수명보다 1.1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34개국 중 14위로 높은 수준에 있음
-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별 순위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살이나 폐렴 등이 사망순위가 높아짐
 - 악성신생물이나 심장질환 등은 사망률이 높아지고, 뇌혈관질환, 만성하기도질환 등은 사망률이 낮아짐
- 사망원인별 비교
 - 전체사망률은 34개 국 중 22위이며, 원인별로는 자살(1위), 운수사고(3위), 위암(3위), 당뇨병(5위), 뇌혈관질환 10위 등으로 높으나 전체 암은 29위로 낮은 편이었음
 - 우리나라 보다 사망률 수준이 낮으면서도 지난 10년간 사망률이 크게 개선된 국가들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 우리나라의 사망수준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지난 10년간 사망원인별 사망률이 크게 개선된 국가는 다음과 같음
 -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 슬로베니아(-67.8%), 네덜란드(-45.2%)
 -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에스토니아(-70.1%), 룩셈부르크(-51.5%)
 - 운수사고 사망률; 포르투갈(-68.6%), 스페인(-67.6%), 아이슬란드(-64.7%), 에스토니아(-63.0), 덴마크(-62.9%), 룩셈부르크(-61.3%)
 - 자살에 의한 사망률; 룩셈부르크(-51.0%), 에스토니아(-39.2%), 스위스(-37.4%)
- 2002년에서 2012년 기간 중 기대수명과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서 사망률은 감소하고 기대수명은 증가하였음. 우리나라는 의료기술과 예방정책의 발달로 위암과 뇌혈관질환 등 고도의 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질환의 사망률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집필자 | 장영식(데이터연계센터 초빙연구위원), 함선유(전문원) 문의 | 02-380-8136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